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여름공동체생활 마지막 날입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주일공동예배 중에 성찬식과 물질의 나눔 순서가 있습니다.
- 오후에는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선교후원의 날 시간을 진행합니다.
- 공동체 직원들의 여름휴가는 7월 31일 ~ 8월 19일 중 10일입니다.
휴가기간에는 아침기도회를 개인기도 시간으로 변경하고,
수요일 정오 중보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다 함께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로나니어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지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31 호
2023년 7월 3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로나니어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은
사
라
방

주인이 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번 여름 공동체생활 중 방별 공동체 모임 시간에 첫 번째로 함께 부른 찬양 '행복'입니다.
유독 이번 공동체생활에서는 지체들의 '좋다.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먼 곳이라도 아랑곳 않고 새벽부터 달려간 방 식구의 거실에서 모두 바닥에 누워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하니 너무 좋다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불 앞에서 맘을 뽀뽀 흘리며 고기를 구우면서도 폭염 따위는 상관없 는 듯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뭐가 그리 재밌는지 서로의 시댁 장은 농담에 하하 호호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남들이 보면 단체로 실성한 사람들 같습니다.

'잠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정말 오래간만에 지체들과 함께하면서 하게 됩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말쑤와 삶을 나누기 전 '행복'이라는 찬양을 비롯하여 20곡에 가까운 찬양을 힘껏 부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이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을 맘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 할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에서 말하는 행복이 정말 참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고백은 이런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방의 여름 공동체생활을 지내면서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섬김이 넘치니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입니다.

그간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나누는 삶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기쁜 일 뿐 아니라 슬픈 일도 나눌 수 없는 단절의 시간을 보냈고 이것은 우리를 외롭고 쓸쓸한 존재들로 만들었습니다. 행복하기가 너무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여름 공동체생활을 통해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됩니다.

내 옆에 신앙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자들이 함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대접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시편 133:1)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하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디아코니아 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357 370 / 390
기도 :
성경 : 로마서 2:17~29
제목 : 완전한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1. 내용: 유대인. (What)

<문단구분>

2:17~24 유대인이 가지는 한계

2:15~29 율법과 할례

2. 의미: 유대인의 행동이나 외양. (Why)

1) 자부심과 다른 실제 행동

2)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3. 적용: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두자. (How)

1) 믿음의 전통에 대해 생각해 보자.

2) 예수님을 바르게 알자.

'청소' 너의 의미

얼마 전 인터넷에 화장실 청소용 전통술 세트를 싸게 판다는 정보를 보았다. "진오 엄마(저는 진오 아빠임)에게 이런 정보가 있는데 어때?" 하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당신이 필요하면 사~"였다. 이 말의 의미는 화장실 청소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그렇다. 퇴사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일하는 공방도 마당에 있으니 더욱 그렇다. 얼마 전 진오 엄마가 모임에서 자기는 진오 아빠가 퇴직하고 매일 집 청소를 해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해석 및 적용을 하자면 그동안 피염피염 청소를 했었는데, 매일 청소를 해달라는 의미다. 따라서 매일 청소를 하자. 사실 난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고, 진오 엄마 논리는 '많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 부인이 일하는 것을 하면 그게 최고'라는 것이다.(나도 동감~)

그래서 요즘에는 가능한 한 매일 청소(청소기 돌리기를)하고 있다. 진오 엄마는 청소하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다고 한다. 청소하면서 느낀 것인데, 청소라고 하는 것이 해도 티가 안 나고 안 하면 티가 나는 특징이 있다. 마치 공기 중의 산소와 같이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없을 때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같다.

우리 공동체에도 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좋은 환경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이 계신다. 누군가는 매 주일 아침 예배당 뜰을 쓰셔서 예배에 참석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산뜻하게 해주고, 누군가는 더운 여름날에 구슬땀을 흘리며 예초기를 돌려주시며, 화단의 화초를 가꾸는 분, 매 주일 지킴이로 청소하며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 등(주보에는 다 적을 수 없음) 많은 분이 수고하신다.

이번 여름 공동체생활을 준비하면서도 공동체생활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솔선수범하여 수고하는 많은 분을 보게 되었다. 특히 작은 인연 가운데서도 수고하는 청년들을 대할 때 참으로 고마운 생각이 든다.

눈에 띄지는 않음지 몰라도 없으면 불편한 것들을 채워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는다. 이번 여름 공동체생활을 준비하면서 나는 파듯한 대접을 많이 받았다.

새쌍사랑방 서병욱 집사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공동기도문

어름공동체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원합니다.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여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편 133 : 1-3
8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로마서 6 : 23
620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교
요한복음 12 : 1-8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어린이사랑방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다” 정태일 목사
< 성찬식 > <물질의 나눔>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주님품에 새생활하네(63)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석용범 박영선/ 봉헌위원 : 장지영/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은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자주 찾으시고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이 날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3> 마리아가 대접을 받고 계신 예수님께 특별한 대접을 하였습니다.

대접은 계산하지 않는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삼백 데나리온을 낭비하였다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의미를 밝히셨고, “복음이 전파 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마26:13, 막14:9> 믿음 안에서 행하는 대접은 계산하지 않으며,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대접하십시오. 계산을 하면 대접할 수 없습니다. 대접하더라도 사랑의 진실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접은 우리가 대접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데, 우리가 대접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하는 대접은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계산하지 말고 대접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최신혜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어린이학교 - 2학년 친구들의 방학 일기 >

7월 23일 일요일

<깜냥>

와! <고양이 해결사 깜냥> 뮤지컬을 보고 나니 너무 좋았다! 가장 웃겼던 장면이 "깜냥 똥 나온다!"라는 장면이다! ㅋㅋㅋㅋㅋㅋㅋ 깜냥이랑 사진도 찍었다.

참 좋은 하루였다. / 서예준

7월 24일 일요일

<엄마랑 꿈나무도서관에 갔다~>

엄마랑 언니랑 나랑 (방학안내문) 종이에 써져있는 2학년 책을 찾으러 '꿈나무도서관'에 갔다. 엄마는 2학년 책 찾으러 가고, 나랑 언니는 책 읽으러 갔다. 안에 들어가 보니 무슨 모형으로 돼있는 방이 있었다. 그 방에서 책을 많이 읽고 밥을 먹으러 갔다. '자반고'라는 데에서 생선을 맛있게 먹고 집으로 가서 이 닦고 씻고 잤다. 끝 / 신예나

7월 26일 수요일

<예쁜 비누 만들기 체험>

오늘은 '오월쑥'이라는 공방에서 신나는 비누 만들기 체험을 받았다. 들어가자마자 예쁜 비누에서 특이하면서 좋은 향기가 났다. 시작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시작할 때 비누가 다 예뻐서 어떤 비누를 만들지 고민하다가 잘 생각해서 내 눈에 딱 힐링되는 비누만 잘 골랐다. 어떤 비누를 골랐냐면 꽃비누랑 바다 비누, 고양이 발바닥비누, 딸기비누, 조개비누, 도넛츠 모양 비누를 골랐다. 향기도 고를 수 있었는데 향이 맘에 드는 게 별로 없어서 조금 고민됐다.

향기를 다 고르고 이제 비누 만들기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파츠가 진짜 파츠가 아니고 비누라는 게 정말 신기했다. 선생님도 친절하셔서 더 즐거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생각도 내가 정하고 파츠도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해서 좋았다. 그리고

배움과 가르침

고 비누를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비누를 다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비누가 굳을 때까지 색깔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프린트한 것 같다고 하셔서 정말 뿌듯했다. 드디어 비누가 다 굳었다. 선생님이 자기보다 더 잘 만들었다고 하셨다.

다음에 또 와야지~! / 이소리

7월 27일 목요일

<어금니 내가 손으로 뽑은 날>

내가 스스로 이빨을 내 손으로 뽑았다. 그래서 칭찬 스티커를 다 채울 수 있다. 그러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선물일까! 아주 아주 궁금하다.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참 궁금하다. / 이채원

7월 28일 금요일

<144개>

집에서 줄넘기를 잡았다. 계속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144개까지 했다. 다음엔 148개 해야지~! / 최하늘

7월 19일 수요일

<계곡>

오늘 아침에 계곡으로 갔다. 도착해서 소리, 서연이, 하늘이, 룩이를 만났다. 그리고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점심식사를 하고 예준이가 왔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포기했다. 그런데 내가 물이 거센 쪽에서 워터슬라이드를 했다. 그러다 집에 갔다. / 최민용

7월 26일 수요일

<엄마 아빠, 그리고 이든이랑 고고roller장으로 갔어요>

오늘은 고고roller장에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이든이랑 갔어요. 거기에서 연습을 많~~~~이 해서 혼자 타게 되었어요. 혼자 타니까 많이 넘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젠 혼자 타니까 뿌듯했어요. 그리고 이든이는 무서워서 뭐 타는 게 있어서 그걸 아빠가 계속 밀어줬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 연습했어요. / 한서연

결혼을 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축하를 위해 모이셨던 하객 분들도 비를 맞으셨습니다.

함께 모인 모두가 비를 맞아서 사진에는 결혼식 하객의 예쁘게 꾸민 모습이 아닌 모두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이 찍혀있습니다.

‘최악의 결혼식이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저희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던 결혼식이라고 중얼거립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상상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더라도 그만큼 아름답지 못했을 거라 회상합니다. 그 영망진창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축제로 바꿔주셨습니다.

행사가 영화로 연극으로, 그리고 축제로 바뀌는 과정은 경이로웠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가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를 뚫고 찾아와주셨고, 우산을 가지고 나와 주셨고, 끝내 그 우산마저도 벗고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객(賓客)은 손님에서 이 기적 을 함께 경험한 증인(證人)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증인들 덕분에 결혼식은 웃음이 만발했고, 호우(豪雨)는 퍼붓는 비에서 가문 땅과 마음을 적시는 시우(時雨)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시작은 계산할 줄 아는 어른들이 아니라, 선생님께 감동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우산을 던져버렸던 멧쟁이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양복이라는 것도, 이 옷을 또 수요일 멧쟁이의 날에 입어야 한다는 것도 모두 까맣게 잊고 있는 멧쟁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들은 저와 아내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으로 만족해했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배워버렸습니다. 우산을 쓰고 옆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닌, 우산을 벗고 뛰어드는 것이라고. 해도 되는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그럼 그 비가 머리를 적시고 옷을 적셔도 웃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름 공동체생활 중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 하시길. 그렇게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기쁨으로 읽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사는 이야기

디아코니아사랑방 이두희 집사

<주요 정오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8, 70

성경 : 시편 147편

말씀 :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여라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그리스 산불진화를 위한 기도>
올해 최고기온을 기록한 남유럽에서 폭염과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스 산불이 계속 이어져 로도스 섬에 서는 관광객과 주민 3만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불이 빨리 진화되고 화재로 인해서 피해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위 해서 기도합시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공협 한마당 잔치를 위한 기도>
8월 말에 있을 한공협 한마당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 공동체에서 함께 참여하여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의미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다가 올 여름 공동체생활 동안 모두들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수요일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상반기 공동생활을 정리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의 회복으로 인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감사할 제목이었음을 다시 한 번 지체들과 확인하고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름공동체 준비로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왔습니다. 공동체 곳곳을 청소하며 여름공동체 기간 동안 공동체에 머물 사랑방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방이라는 한 공간에서 지체들과 단 며칠이라도 삶을 나누며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장영미 전도사 >